

## 한국인 혈액투석 환자에서 내경정맥의 해부학적 위치의 다양성에 대한 연구

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<sup>1</sup>, 방사선과학교실<sup>2</sup>

김현경<sup>1</sup> · 김영수<sup>1</sup> · 윤선애<sup>1</sup> · 김용수<sup>1</sup> · 김영옥<sup>1</sup> · 원유동<sup>2</sup>

### Anatomical Variability of Internal Jugular Vein in Korean Dialysis Patients

Hyun Kyung Kim<sup>1</sup>, Young Soo Kim<sup>1</sup>, Sun Ae Yoon<sup>1</sup>, Yong Soo Kim<sup>1</sup>, Young Ok Kim<sup>1</sup>, Yoo Dong Won<sup>2</sup>

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<sup>1</sup>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Medical College, Department of Radiology<sup>2</sup>

**목적** : 혈액투석 환자에서 내경정맥은 쇠골하정맥에 비해 중심정맥 협착증의 발생빈도가 낮아 혈액투석용 도관을 삽입하는데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정맥이다. 중심정맥 도관 삽입시 천자부위에서 내경정맥은 대부분이 경동맥의 전방-외측방향 (anterior-lateral)에 위치하고 있으나 일부 환자에서 다른 부위에 위치하고 있어 내경정맥 천자시에 주의해야 한다. 외국에서는 내경정맥의 해부학적 위치의 다양성에 관한 보고가 있으나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보고 되어 있지 않다.

**방법** : 급성신부전증 혹은 만성신부전증으로 도플러 초음파 유도하에 혈액투석용 내경정맥 도관을 삽입한 358명의 혈액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. 이 환자들에서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통해 내경정맥 천자부위에서 경동맥을 기준으로 하여 양측 내경정맥의 해부학적 위치를 조사하였다. 해부학적 위치는 경동맥의 전방-정중앙 방향 (anterior), 전방-외측부 방향 (anterior-lateral), 전방-내측부 방향 (anterior-medial), 그리고 경동맥과 평행한 외측부 방향 (lateral)으로 분류하였다.

**결과** : 전체 대상 환자 358명의 평균 연령은  $57 \pm 15$ 세 (14-88세)였고, 남녀비는 203/155명이었다. 내경정맥이 경동맥의 전방-외측부 방향에 위치한 환자는 좌, 우측이 각각 68.2%, 74.6% 였다. 그 외 방향으로 전방-정중앙 방향이 좌, 우측 각각 23.7%, 21.2%로 가장 많았고 전방-내측부 방향이 7.0%, 1.7%, 외측부방향이 1.1%, 2.5%였다.

**결론** : 본 연구 결과 한국인 혈액투석 환자의 1/3에서 내경정맥이 비정상적인 해부학적 위치 (경동맥의 전방-외측부 이외 부위)에 존재하였다. 그러므로 내경정맥에 혈액투석용 도관을 삽관시에는 반드시 초음파 유도하에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면서 시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.

**Key Words** : 신부전증, 혈액투석, 내경정맥

Renal failure, Hemodialysis, Internal jugular vein